

농촌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실태 및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분석*

Rural Migrant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Relationship With Rural Life Satisfaction

황정임** · 최윤지*** · 조현민**** · 윤순덕*****

Jeong Im Hwang · Yoon Ji Choi · Hyeon Min Cho · Soon Duck Y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current situations of urban-to-rural migrant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rural life satisfaction. This topic is important because one of the main barriers to migration decision is job availability, especially in rural areas. Besides, rural areas need more human resources to support aging communities, as rural population is constantly decreasing. For this study, we used the methods of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We met 121 respondents who were in community participation activities by the snowball sampling method in 10 counties nationwide. As a result, we identified community participation activities could contribute to urban-to-rural migrants' stable settlement and improving their satisfaction with rural lives.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과제번호 : PJ006693201003).

**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 e-mail: jihwang@korea.kr

***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e-mail: veritas96@korea.kr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박사과정. e-mail: chohm@dongguk.edu

*****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 e-mail: rdaysd@korea.kr

주요어(key words): 농촌 이주(Urban-to-rural Migration), 귀농(Refarming), 귀촌(Returning to Rural Areas), 지역사회 참여활동(Community Participation)

1. 서론

귀농·귀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은 아직까지 정점을 향해 상승하고 있는 양상이다. 귀농과 귀촌을 목적에 따라 각각 농업 종사, 혹은 농업 외 활동을 위한 농촌 이주로 정의할 때, 도시민들은 특히 ‘귀촌’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민신문¹⁾이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1,282명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1%가 농촌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농촌 거주 형태로는 귀촌을 희망한 사람이 89.7%로, 귀농을 희망한 사람 10.3%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이 귀촌을 준비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꼽은 것은 ‘생계를 이어갈 수입원’(45.8%)이며, 월 생활비로는 ‘100만~300만 원 미만’(69.7%)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순덕 등(2005)의 연구에서도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58.2%가 은퇴 이후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되면, 되도록 한적한 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촌의 주거·교육·복지·문화 등 생활여건 개선과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 등은 귀농·귀촌인과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농촌 지역사회에서 주도할 수 있는 유

1) 농민신문(2011.8.12.자), ‘도시민 10명 중 7명 “농촌에 살고 싶다”’.

력한 후보군이 귀농·귀촌인들이기 때문이며, 사업이 정착됨에 따라 더 많은, 우수한 인력을 농촌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대상, 즉 '지역사회 참여활동'은 일정 정도 공공성을 띠고 개인 혹은 소집단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로서 사회적일자리나 커뮤니티비즈니스 등으로 조직화, 체계화되거나 혹은 그 이전 형태의 다양한 활동들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귀농·귀촌인들은 농촌 사회에서 이농과 고령화로 인해 벌어지는 틈새들을 채우는 역할을, 굳이 지역사회 참여활동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기 이전부터 담당해왔다. 이환의(2010)는 홍성군 홍동면의 사례를 통해, 귀농인들은 상대적으로 경험과 지식, 기술이 부족한 농사 영역에서는 지역민들의 도움을 받는 대신, 학교 내 운영위원, 도서 도우미, 급식 모니터링, 방과후학교 교사,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위원, 다문화가정 한글교사 등 지역민의 참여가 낮은 분야에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의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10년간 지역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박문호 등(2008), 김정섭(2009)은 기존 사례연구의 분석을 통해 귀농인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정책 지원을 통해 도농교류, 귀농·귀촌 지원, 농업생산자 조직, 마을 단위 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귀농·귀촌인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사례는 이러한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쏟아지는 언론 보도, 출판물, 지자체 홍보물 등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활동에의 구체적 참여 경로, 형태, 효과 등에 대해 다각적,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데에 주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구체적 실태와 더불어, 지역사회 활동 만족도와 농촌생활 만족도의 관계 등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

로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의의 및 지원 방향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2.1.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개념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용어로서 '사회참여'가 있다. 박정은(1994)은 사회참여를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욕구를 동시에, 혹은 각각 충족할 수 있는 활동의 수행으로 정의하였다. 양순미 등(2009)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의 자아개념을 확인케 하며 타인과의 상호교류와 관련되어 있는 농업활동, 취업활동, 지역사회활동을 아우르는 용어로서 '사회참여활동'을 정의하였다. 사회참여활동 중 하나인 지역사회활동은 '봉사·교육·단체활동 등의 비공식적이거나 준공식적인 성격을 지니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지역사회 참여활동은 개인이 사회와 관계를 맺는 다양한 활동영역 가운데 하나로서 공식적 성격이 약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사회적기업'으로의 조직화, 정형화 이전 단계의, 혹은 이를 구성하는 개별적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정규(2009)는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사회적 임무 지향적(social mission-driven)인 조직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농어촌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형,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형, 지역자원 및 환경보전 기여형, 그리고 농어촌 사회적기업 지원형의 4유형으로 구분하였다(〈표 1〉).

〈표 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사업 분야

유형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의 사업 분야 (박진도 등, 2009; 유정규, 2009)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박문호 등, 2008; 김정섭, 2009)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형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전통공예, 향토산업, 지역특화산업, 관광 및 도농교류(산촌유학 등), 지역통화, 재래시장(농민시장), 취업지원, 마을만들기, 정보서비스	마을 단위 개발사업 실무, 도농교류 활동, 생활협동조합, 농업생산자 조직, 농산물 가공품 생산 조직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형	복지, 교육 및 평생학습, 문화, 보건의료, 고령자 및 장애우 돌봄, 여성, 청소년 및 아동 지원	귀농·귀촌 지원 활동, 평생학습 지원 활동, 방과후 아동생활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여성농업인 상담 지원, 지역사회 도서관 운영, 노인보건의료 지원, 영유아 보육, 문화·취미 동아리, 교통약자 차량 운행 지원
지역자원 및 환경보전 기여형	지역의 농업자원 보전, 환경 및 경관 보전, 야생동식물 보호, 전통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지역에너지, 리사이클링	지역사회 조사사업, 지역사회 경관 관리
농어촌 사회적기업 지원형	인재육성, 컨설팅, 자금증개(공여)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다룬 박문호 등(2008), 김정섭(2009)의 연구를 살펴보면, 박진도 등(2009), 유정규(2009)가 제시하고 있는 사업 분야와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영역이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침체된 농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종류의 경제활동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활동을 ‘지역사회 참여활동’으로 명명하였다. 8개 지역에서 발견된 17개 지역사회 참여활동 유형은 도농교류 활동, 농업 생산자 조직 참여, 마을단위 개발사업 실무, 귀농·귀촌 지원 활동, 평생학습 지원 활동 등이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고에서는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영리추구가 우선 목적이 아닌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 등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지니고 있는 활동으로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실태 및 효과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은 앞서 언급한 연구 이외에서도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공공부문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 공공부문 지원 없이 귀농·귀촌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조직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박문호 등, 2008; 김정섭, 2009).

농림부가 2006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마을 사무장' 제도와, 진안군이 도입한 '마을 간사' 제도는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농촌 사회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외부로부터 유입하고자 한 적극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구자인, 2006). 구자인(2006)은 귀농자가 마을 간사로서 마을 사업을 담당할 때 객관적 문제 분석 능력, 봉건적 인습 관계나 보조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입장 등에서 이 점이 있다고 하였다. 진안군에서는 마을 간사 채용을 위해 사업 설명회, 공개 채용, 전문가 심사 등 체계적 절차를 밟아 나간 끝에 젊고 전문성을 가진 11명의 마을 간사를 채용했으며, 현재까지 이 제도를 지속 유지·발전시켜오고 있다.

진안군에서는 이밖에도 100여 명의 귀농·귀촌인이 마을 간사, 마을 사무장, 산촌매니저, 귀농·귀촌 지원 조직인 '뿌리협회' 직원 등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박시현 등, 2011). 또한 진안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여활동 공모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기획한 아이টে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또 사업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농특산물전시장 및 직거래 유통', '약초생산기반을 활용

한 도농교류사업, '목공기술 교육', '마을신문 제작 기법 교육' 등의 사업 아이템이 선정, 지원된 바 있다. 진안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지자체의 적극적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김정원, 2008).

그러나 지자체의 주도 없이도 다양한 학습 조직, 환경 보전 단체, 복지 단체 등을 귀농·귀촌인이 자발적으로 구성하거나, 기존 조직 또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홍성군 홍동면 사례(이환의, 2010; 금창영, 2011), 특히 전통, 문화를 구심축으로 한 마을 만들기를 예술가 집단이 원주 농촌 마을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례(이지원, 2009) 등이 알려져 있다.

한편 귀농·귀촌인이 유입됨으로써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제 영역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들에 주목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섭(2009)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역 저발전의 집약적 표현일 뿐 아니라 지속적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면서, 귀농·귀촌 정책이 중요한 것은 귀농·귀촌 인구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Reichert(2011)는 17개 주의 21개 지역사회에서 귀촌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귀촌자들의 유입이 농촌 지역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제 부문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젊은이들의 유출로 인한 손실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Bosworth(2006)는 농촌 지역 일자리의 10%를 농촌 이주자에 의한 초소규모사업체(microbusiness)가 담당한다고 하면서, 농촌 이주자가 농촌경제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농가소득과 농업 관련 일자리를 보전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외부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민수 등(2011)은 도시 이주자와 농촌 중소기업체의 성장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도시로부터의 이주자가 농촌 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한다

는 측면, 새로운 네트워크를 확산시키고 전문기술과 지식을 유입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Glasgow et al.(2008)은 은퇴 이주자의 경우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지역사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여, 지역 조직들이 리더십, 기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일상적 유지 활동에서 이주자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Brown et al.(2008)은 은퇴자 이주 지역에서의 사례연구를 통해 은퇴자들이 병원, 학교, 도서관, 가족복지기관 등에서 예산 삭감 등으로 발생한 서비스 공백을 채우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자원봉사자, 전문가, 관리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속속 보고됨에 따라 귀농·귀촌인의 전문적 역량을 기초로 한 창업, 일자리 지원 정책이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민수, 2010).

2.3. 지역사회 참여활동과 농촌생활 만족도의 관계

생활만족은 개인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공경호, 2002), 귀농인의 농촌생활 만족도는 귀농인의 정착 성패를 가름하는 주요한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

농촌 정착 귀농인의 농촌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건강상태, 교육수준, 경제상태, 가족형태 등이 알려져 있다(박공주 등, 2006). 이상호(2008)는 경북 지역 귀농인을 대상으로 지역 만족도와 지역 주민과의 관계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지역 만족도 분석 결과, 연령이 젊을수록, 귀농준비기간이 충분할수록, 학력이 대졸에 비해 고졸일수록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만

족도 분석 결과, 연령이 젊을수록, 대졸에 비해 고졸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공주 등(2006)의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농촌 이주 전 변인, 농촌 이주 후 변인으로 나누어 농촌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운데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혼자보다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농촌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이주 전 변인에서는 영농교육 도움 수준, 농촌 이주자금 수준이 높을수록, 농촌 이주 후 변인을 투입했을 때에는 주민들과의 관계 향상을 위한 노력 정도가 높을수록 농촌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사회 참여활동과 농촌생활 만족도의 관계 구명과 유사한 연구로는 사회참여활동과 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양순미 등, 2009; 양순미, 2010),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박세영, 2011; 방하남, 2000; 백승규 등, 2010; 안병욱 등, 2010; 제갈돈 등, 2007).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농촌 사회참여활동에 따른 생활만족 변화를 분석한 양순미 등(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참여활동 가운데 취업활동이 생활 만족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활동, 농업활동의 순으로 생활만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순미(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참여활동의 경험 여부보다 사회참여활동 태도의 적극적인 정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업활동과 지역사회활동에의 참여 태도가 생활 만족도에 유의하게 작용했다.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의 관계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개인생활에서 차지하는 직무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박세영(2011)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

정한 후 직무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직무만족이 생활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함을 확인하였다. 직무만족 요인들 가운데에서는 업무 자체, 보상, 동료 요인이 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하남(2000)은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의 관계를 구조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생활 만족도와 직무 만족도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자가소유 여부, 가구소득 수준)와 경제적 보상수준(월 임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방향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들이 일 중심형에 가깝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갈돈 등(2007)의 연구에서도 직무만족이 생활만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직무 내용에 대한 만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참여활동은 직업으로, 혹은 자원봉사나 취미·여가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직무의 일종으로 해석하고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그간의 귀농·귀촌인의 생활 만족도 연구에서 영농활동 관련 변인이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경우는 있었지만,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 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시도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실태를 고찰한 후, 농촌생활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에 근거,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영리추구

가 우선 목적이 아닌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 등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지니고 있는 활동으로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농촌 이주 도시민'을 '최근 20년 이내 행정구역상 동 지역으로부터 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기간 범위를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귀농·귀촌자가 농촌 사회에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담당해 나가고 있는 활동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한 표집은 먼저 지역을 선정한다 다음,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졌다. 지역 선정 시에는 각 도 단위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최근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추천받았다. 이러한 과정으로 최종 선정된 지역은 강원권 2(양구, 양양), 충청권 2(괴산, 홍성), 호남권 3(진안, 완주, 남원), 영남권 3(산청, 봉화, 상주) 지역의 총 10지역이었다. 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121명을 찾아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25명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조사는 구조화된 조사도구를 이용하여, 2010년 6~10월²⁾에 걸쳐 이루어졌다.

3.2. 측정도구 구성

지역사회 참여활동 실태, 지역사회 활동 만족도와 농촌생활 만족도의 관계 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인들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인 귀농·귀촌인의 개인 특성 및 귀농·귀촌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과 함께, 농촌 이

2) 본 논문에 제시된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 결과는 모두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인터뷰조사 결과 기술시 사용한 현재 시제에 의해 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새삼 밝힌다.

주 동기, 동반 이주자, 준비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실태 분석을 위해서는 참여 동기, 종사기간, 임금 또는 소득, 근무 형태, 계속 의향, 활동의 장점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지역사회 참여활동 및 농촌생활 만족도의 측정은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의 관계, 또는 직무만족과 생활만족 각각을 측정하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였다(박세영, 2011; 안병욱 등, 2010; 백승규 등, 2010; 제갈돈 등, 2007). 아울러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 만족도에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박공주 등(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측정 대상인 지역사회 참여활동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임금 또는 소득, 안정성, 업무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의 7개 하위 요인, 농촌생활 만족도는 가계소득활동, 가족관계, 이웃관계, 여가생활, 주거환경, 정착지역의 6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지역사회 참여활동, 농촌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값으로는 각각의 7개 요인, 6개 요인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와 농촌생활 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821, .753으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 방법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실태에 대한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t-검증, 일원분산분석을,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와 농촌생활 만족도의 관계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19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사례별로 정리한 인터뷰 조사 결과는 설문조사 결과 해석 시 필요한 경우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설문에 응답한 121명의 농촌 이주 도시민 가운데에는, 남성(66.9%)이 여성(33.1%)보다, 기혼(81.0%)이 미혼(19.0%)보다 많았다. 연령 분포로는 50대(49.0%), 40대(44.0%), 60대 이상(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67.8%), 고졸(14.9%), 대학원 이상(14.0%)이 총 96.7%를 차지해, 학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1,001~3,000만 원 이하가 52.1%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 원 이하도 17.4%를 차지했다.

〈표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구 분		빈도	백분율
성별 (n=121)	남성	81	66.9	혼인 상태 (n=121)	미혼	23	19.0
	여성	40	33.1		기혼	98	81.0
연령 (n=100)	30대 이하	2	2.0	학력 (n=121)	중졸 이하	4	3.3
	40대	44	44.0		고졸	18	14.9
	50대	49	49.0		대졸	82	67.8
	60대 이상	5	5.0		대학원 이상	17	14.0

구분		빈도	백분율
가구 소득 (n=110)	1,000만원 이하	21	17.4
	1,001~3,000만원 이하	63	52.1
	3,001~5,000만원 이하	15	12.4
	5,001만원 이상	11	9.1

응답자들의 '귀농·귀촌 동기'로는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8.9%로 가장 많았다. '농촌생활이 좋아서'라는 응답도 25.6%를 차지하였으며, 14.9%가 '농업 종사를 위해서'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분류에 속한 응답으로는, '퇴직 후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예술 작업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서' 등이 있었다. '도시 생활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사업에 실패해서' 등 도피적 성격의 응답도 일부 눈에 띄었지만, 적극적 가치 추구형 귀농·귀촌이 대부분이었다.

동반 귀농·귀촌자로는 '부부+자녀'의 2세대가 45.3%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라는 응답도 상당수(28.2%)를 차지했다.

귀농·귀촌 준비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정보 수집 및 정착지 탐색'이 3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현장 실습 및 체험 연수'가 17.3%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6.7%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에는 '마음가짐을 준비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기타' 응답 가운데에는 '도예, 천연염색, 요가 등 농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준비기간으로는 1년 이하가 33.7%로 가장 많았지만, 5년 이상 준비했다는 응답도 20.8%를 나타냈다.

이주 이전 직업으로는 회사원이 4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자영업자(24.0%), 교사(9.9%), NGO활동가(8.3%) 등이 많았다.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의 혜택을 한 가지 이상 받은 비율이

40.5%로, 받지 않은 비율(59.5%)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귀농·귀촌 형태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구 분		빈도	백분율
귀농·귀촌 동기 (n=121)	농업 종사를 위해	18	14.9	동반 귀농·귀촌자 (n=117)	혼자	33	28.2
	농촌 생활이 좋아서	31	25.6		부부	17	14.5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17	14.0		부부+자녀	53	45.3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	35	28.9		부부+자녀+부모	8	6.8
	기타	20	16.5		기타	6	5.1
귀농·귀촌 준비 방법 (n=161, 복수 응답)	정보수집 및 정착지 탐색	58	35.8	이주 이전 직업 (n=121)	회사원	48	40.0
	인터넷 동호회	8	4.9		자영업자	29	24.0
	교육수강	25	15.4		교사 (학교, 학원 등)	12	9.9
	현장실습 및 체험연수	28	17.3		NGO활동가	10	8.3
	특별한 준비없음	27	16.7		예술가	5	4.1
	기타	16	9.9		기타 (학생, 주부 등)	17	14.0
귀농·귀촌 준비 기간 (n=101)	1년 이하	34	33.7	정부 사업 수혜 여부 (n=116)	있다	47	40.5
	1.1~2년	19	18.8		없다	69	59.5
	2.1~3년	15	14.9				
	3.1~5년	12	11.9				
	5.1년 이상	21	20.8				

4.2. 지역사회 참여활동 실태

먼저, 응답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활동 영역을 박진도 등(2009), 유정규(2009)의 분류에 따라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지역사회 참여활동 유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시(빈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형	69	57.0	-마을단위사업 실무, 도농교류 활동(33) -농산물(가공품)생산자조직 활동(32) -생활협동조합 실무(4)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형	34	28.1	-귀농·귀촌인 지원 활동(13) -청소년교육, 학교생활 지원 활동(9) -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 등 지원 활동(6) -평생학습지원 활동(5) -지역사회 라디오 방송(1)
지역자원 및 환경보전 기여형	18	14.9	-문화예술 활동, 취미동아리 활동 등(10) -지역사회조사사업 참여(6) -지역 환경자원 보전,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활동 등(2)
계	121	100	-

지역사회 참여활동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활동이 57.0%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자원 및 환경보전’과 관련된 활동이 각각 28.1%, 14.9%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형 활동 가운데에서는 마을단위사업 실무나 도농교류 활동(47.8%)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마을 사무장, 간사 등의 제도로 중앙이나 지방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가공품)생산자 조직 활동(46.4%)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귀농·귀촌인이 주도적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하여 활동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³⁾

귀농·귀촌인 지원 활동은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형 활동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었다(38.2%). 교육이나 복지 영역(평생학습지원 활동, 청소년교육/학교생활 지원 활동⁴⁾, 노인/장애인/결혼이민자/여성농업인 등 지원 활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율도 58.8%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자원 및 환경보전 기여형에서는 농촌 지역의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문화예술, 취미동아리 영역(악기 개발 및 전시, 논생물 공부, 마을 합창반 활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었다(55.6%).

이와 같은 활동으로부터 얻는 월평균 소득은 0~300만 원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74.6%가 100만 원 이하였다. 이 가운데 무급으로 근무(활동)하는 경우가 34.7%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농촌 이주 전 소득원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8.8%는 '농업에 종사할 계획'이었다고 응답했다. 농업 이외 일 자리를 계획하거나, 막연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52.1%였다. 또한 소득원을 이주 전에 결정한 비율이 65.3%인데 반해, 결정하지 못한 비율이 3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 동기를 살펴보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52.5%) 또는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25.0%)라는 응답이 많았다.

3) 양구군에 귀농하여 3년차를 맞고 있는 C씨(남성, 56세)는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농산물 전처리 가공 영농조합법인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 농업인 5명이 조합원으로 있으며, 작업량에 따라 10~20명의 직원을 고용함에 따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 생산물을 수매하여 사용함으로써 판로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2010.8.4. 인터뷰자료).

4) 상주시에 귀농하여 7년차를 맞고 있는 B씨(여성, 46세)는 농촌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작은학교살리기모임'을 주도하여 방과후 활동으로 목공수업, 독서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는 데에 일조했다.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지역 학부모들의 관심을 확대시키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2010.8.24. 인터뷰자료).

인터뷰조사 결과는 이주 이전부터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계획했다기보다는, 이주 이후 특정 계기에 의해 참여하게 된 경우들을 더욱 상세하게 보여주었다. 진안에 거주하고 있는 K씨⁵⁾는 건강상의 이유로 농촌에 별장을 두고 도시 생활과 병행할 계획이었지만, 마을 주민들과 가까워지면서 마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바람이 생겨 사무장까지 맡게 되었다. 봉화로 이주한 K씨⁶⁾는 남편을 따라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고향으로 온 경우로서, 농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끝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일환으로 마을개발사업 실무를 맡게 되었다.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농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47.5%로 많았으며, 지역사회 참여활동 위주로 하는 경우도 30.8%를 차지하였다. 향후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23명 가운데 34.8%가 '농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에, 지역사회 활동을 개인의 농업 혹은 농촌 정착 과정에서 활용하거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계기로 삼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괴산에 정착한 S씨⁷⁾는 영농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면서 지역사회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영농조합법인 실무자로서 먼저 1년을 근무한 후에 농업에 종사하기로 계획하고 귀농하였다. 현재도 영농기술을 익히기 위해 농업을 소규모로 병행하고는 있지만, 소득의 7~80%를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Y씨⁸⁾는 먹을거리의 자급으로부터 시작해, 보다 능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 흥성으로 귀농하였다. 농촌 여성을 위한 복지 활동에 봉사 차원으로 참여하다가 조직의 필요 등 여러 상황에 의해 현재 직책까지 맡게 된 상황이나, 처음 소망대로 제대로 농사짓기 위해 향후

5) 여성, 47세, 귀농 3년차, 마을 사무장(2010.7.1. 인터뷰자료).

6) 여성, 39세, 귀농 8년차, 체험마을 프로그램 관리자(2010.8.12. 인터뷰자료).

7) 남성, 45세, 귀농 1년차, 영농조합법인 실무자(2010.7.21. 인터뷰자료).

8) 여성, 46세, 귀농 8년차, 여성복지센터 실무자(2010.6.25. 인터뷰자료).

그만둘 계획에 있다.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근무(활동)형태로는 상근인 경우가 39.8%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시에 그때그때 일하는 경우가 33.1%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참여활동과 다른 활동들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은, 필요시 근무하거나 시간제로 근무하는 등(47.5%) 비교적 유연한 시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사례로 제시한 진안의 K씨도 이러한 장점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산청에 정착하여 생산자 연합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C씨⁹⁾는 농사일과 병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대해 기본 활동비를 제공하는 형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가장 큰 이점으로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음'이라는 응답이 50.4%로 많았으며, '지역 정착'(30.6%)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도움'(11.6%)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인맥형성에 좋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 등이 있었다. P씨¹⁰⁾는 생태적 삶을 위해 남편을 따라 원주로 귀농하면서 농촌에서 농업 외 일 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귀농 2년차 접어드는 현재 농업생산자조직에서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업무에 보람을 느끼며 매우 만족스럽게 근무하고 있다.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오히려 도시에 비해 많다는 것이 P씨가 농촌에 와서 느낀 것이라고도 하였다. 역시 남편을 따라 홍성으로 귀농한 J씨¹¹⁾는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가장 큰 이점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도시 소비자로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고, 또 남편 주도로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보는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

9) 남성, 50세, 귀농 11년차, 생산자 연합회 실무자(2010.10.7. 인터뷰자료).

10) 여성, 40세, 귀농 2년차, 농업생산자조직 실무자(2010.7.2. 인터뷰자료).

11) 여성, 43세, 귀농 3년차, 생활협동조합 실무자(2010.6.25. 인터뷰자료).

계에 큰 힘이 된다고 하였다. 어느 정도 영농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면, 그만 두고 농업에 전념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80.8%는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계속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23명 가운데 업무나 활동에서의 불만(적성, 업무량, 임금, 인간관계)이 요인으로 작용한 경우는 30.4%였으며, 나머지 69.6%는 농업에 전념하거나 다른 계획이 있어 중단하려는 경우였다.

〈표 5〉 지역사회 참여활동 실태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구 분		빈도	백분율
농촌 이주 전 일자리 결정 여부 (n=121)	이주 이전 일 지속	10	8.3	지역 사회 참여 활동 동기 (n=120)	경제적 이유	14	11.7
	농업 종사 계획	47	38.8		지역사회 적응 목적	30	25.0
	이주 전 농업 외 일자리 결정	22	18.2		의미 추구	63	52.5
	농촌 정착 후 탐색 계획	31	25.6		새로운 경험 추구	9	7.5
	계획 없었음	7	5.8		기타	4	3.3
	기타	4	3.3				
다른 활동 과의 병행 형태 (n=120)	지역사회활동 위주	37	30.8	근무 (활동) 형태 (n=118)	상근	47	39.8
	지역사회활동+농업	57	47.5		시간제 근무	17	14.4
	지역사회활동+기타	12	10.0		필요시 근무	39	33.1
	지역사회활동 +농업+기타	10	8.3		기타	15	12.7
	기타	4	3.3				
활동 이점 (n=121)	경제적으로 도움이 됨	14	11.6	활동 계속 의향 (n=120)	있음	97	80.8
	지역정착에 도움이 됨	37	30.6		없음	23	19.2
	보람 제공	61	50.4				
	기타	9	7.4				

4.3. 개인 특성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형태에 따른 만족도 분석

4.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귀농·귀촌 형태에 따른 만족도 분석

앞서 기술통계값을 제시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에 따른 만족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성별 변인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가 높은 반면, 농촌생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혼인상태 변인에서도,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가 높은 반면, 농촌생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연령 변인에 있어, 30대 이하가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농촌생활 만족도는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 집단이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고졸 집단이 농촌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1,001~3,000만 원 이하인 집단에서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소득이 5,001만 원 이상으로 가장 높은 경우에 농촌생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표 6〉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차이 분석

구분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		농촌생활 만족도	
		빈도	평균(표준편차)	빈도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성	75	3.651(.687)	75	3.789(.652)
	여성	38	3.504(.661)	36	3.861(.514)
	t값	-1.093		.583	
혼인상태	미혼	21	3.646(.825)	21	3.754(.800)
	기혼	92	3.592(.646)	90	3.826(.560)
	t값	.332		-.390	

연령	30대 이하	2	3.786(.707)	2	3.833(.471)
	40대	43	3.684(.629)	40	3.850(.547)
	50대	46	3.512(.711)	47	3.858(.628)
	60대 이상	5	3.629(.812)	5	3.967(.506)
	F값		.528		.060
학력	중졸 이하	4	3.036(.576)	2	3.750(.589)
	고졸	15	3.486(.691)	15	3.956(.694)
	대졸	77	3.651(.657)	77	3.773(.587)
	대학원 이상	17	3.613(.767)	17	3.873(.665)
	F값		1.218		.440
가구 소득	1,000만원 이하	19	3.353(.623)	19	3.597(.632)
	1,001~3,000만원 이하	61	3.679(.626)	62	3.825(5.598)
	3,001~5,000만원 이하	15	3.600(.830)	14	3.810(.669)
	5,001만원 이상	9	3.492(.711)	11	4.121(.606)
	F값		.301		.168

귀농·귀촌 형태(귀농·귀촌 동기, 동반 귀농·귀촌자, 귀농·귀촌 준비 방법, 이주이전 직업, 귀농·귀촌 준비 기간, 농촌 거주 기간)에 따른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 및 농촌생활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귀농·귀촌 준비기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준비기간이 5년을 초과한 집단에서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 및 농촌생활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다른 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귀농·귀촌한 경우, 미세하게나마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 농촌생활 만족도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반 귀농·귀촌자 변인에서는 '기타' 형태에서 지역사회 참여활동 및 농촌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귀농·귀촌 이전에 NGO활동에 종사한 경우에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예술 분야에 종사했

던 사람들이 농촌생활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및 농촌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 귀농·귀촌 형태에 따른 만족도 차이 분석

구분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		농촌생활 만족도	
		빈도	평균(표준편차)	빈도	평균(표준편차)
귀농·귀촌 동기	농업 종사를 위해	17	3.555(.517)	18	3.676(.768)
	농촌 생활이 좋아서	29	3.606(.757)	27	3.827(.624)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17	3.681(.724)	16	3.958(.668)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	32	3.661(.686)	31	3.952(.460)
	기타	18	3.460(.673)	19	3.570(.540)
	F값		.326		.653
동반 귀농·귀촌자	혼자	30	3.614(.701)	30	3.761(.675)
	부부	16	3.473(.643)	16	3.896(.467)
	부부+자녀	49	3.563(.630)	49	3.800(.625)
	부부+자녀+부모	8	3.821(.853)	8	3.750(.563)
	기타	6	3.976(.983)	6	4.111(.664)
	F값		.826		.501
이주 이전 직업	회사원	47	3.532(.645)	48	3.722(.580)
	자영업	26	3.577(.741)	25	3.780(.756)
	교사	10	3.514(.643)	10	3.900(.459)
	NGO활동	9	3.889(.614)	7	3.881(.469)
	예술가	5	3.543(.478)	4	3.917(.500)
	기타	16	3.759(.801)	17	4.010(.619)
	F값		.630		.653

귀농·귀촌 준비 기간	3년 이하	65	3.5912(.640)	64	3.792(.621)
	3.1-5년 이하	11	3.117(.797)	12	3.556(.733)
	5.1년 이상	20	3.771(.704)	18	3.907(.549)
	F값		3.432**		1.163
정부 사업 수혜 여부	있다	42	3.571(.640)	45	3.770(.561)
	없다	68	3.603(.698)	65	3.851(.642)
	t값		.237		.683

*p<0.05

4.3.2. 지역사회 참여활동 형태에 따른 만족도 분석

지역사회 참여활동 형태에 따른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 농촌생활 만족도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는 변인은 ‘참여동기’, ‘다른 활동과의 병행 형태’와 ‘향후 활동 계속 의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 활동을 의미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 경우에,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한편, 새로운 경험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우에 농촌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이유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활동 및 농촌생활 만족도가 모두 낮았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기타 농업 외 활동과 병행할 때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에서는 농촌생활 만족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계속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활동 및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농촌 정착 후 일자리를 탐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우에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근무(활동) 형태로서 필요시 근무하는 경우에,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형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자원 및 환경보전

기여형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 지역사회 참여활동 형태에 따른 만족도 분석

구분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		농촌생활 만족도	
		빈도	평균(표준편차)	빈도	평균(표준편차)
이주 전 일자리 결정 여부	이주 이전 일 지속	10	3.257(.878)	9	3.741(.813)
	농업 종사 계획	43	3.611(.670)	44	3.818(.621)
	농촌 정착 후 탐색 계획	29	3.778(.722)	27	3.833(.585)
	이주 전 결정	21	3.442(.467)	21	3.802(.496)
	계획 없었음	7	3.735(.518)	7	3.762(.827)
	기타	3	3.714(1.116)	3	3.944(.674)
	F값		1.224		.068
활동 참여 동기	경제적 이유	14	3.225(.537)	14	3.369(.634)
	지역사회 적응 목적	29	3.443(.717)	28	3.560(.739)
	의미 추구	59	3.772(.662)	56	4.021(.461)
	새로운 경험 추구	7	3.714(.728)	9	4.037(.351)
	기타	3	3.381(.218)	4	3.708(.498)
	F값		2.668**		5.935***
다른 활동과 의 병행 형태	지역사회활동 위주	35	3.571(.782)	32	3.765(.673)
	지역사회활동+농업	48	3.637(.621)	49	3.758(.628)
	지역사회활동+기타	10	3.961(.519)	10	4.030(.420)
다른 활동과 의 병행 형태	지역사회활동+농업+기타	9	3.371(.599)	8	4.019(.496)
	기타	3	2.810(.165)	3	3.889(.509)
	F값		2.227*		0.765

근무 (활동) 형태	상근	44	3.597(.786)	42	3.806(.600)
	시간제 근무	17	3.580(.632)	16	3.750(.612)
	필요시 근무	36	3.635(.649)	37	3.761(.672)
	기타	15	3.524(.500)	13	3.923(.428)
	F값	0.096		0.261	
활동 계속 의향	있음	92	3.679(.631)	89	3.856(.575)
	없음	20	3.243(.803)	21	3.603(.720)
	t값	2.660***		1.722*	
활동 유형	경제 활성화 기여형	67	3.563(.699)	65	3.728(.612)
	사회 활성화 기여형	32	3.670(.692)	31	3.909(.626)
	자원/환경보전 기여형	14	3.633(.573)	15	3.978(.530)
	F값	.281		1.576	

p<0.1, ** p<0.05, *** p<0.01

4.4.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와 농촌생활 만족도의 관계 분석

먼저 지역사회 참여활동과 농촌생활 만족도 각각의 하위 요인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관련성이 높은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임금(소득) 및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가계소득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의 다른 하위 요인과 농촌생활 만족도의 다른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0.4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표 9〉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와 농촌생활 만족도의 상관관계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 \ 농촌생활 만족도	가계 소득활동	가족 관계	이웃 관계	여가 생활	주거 환경	정착 지역
입금(소득)	.564***	.206**	.257***	.220**	.017	.127
안정성	.437***	.178*	.189**	.215**	.153	.135
업무내용	.239**	.168*	.332***	.259***	.242**	.223**
근로환경	.095	.164*	.134	.228**	.179*	.332***
근로시간	.220**	.273***	.313***	.271***	.183*	.356***
개인발전	.270***	.065	.385***	.317***	.186**	.283***
인간관계	.285***	.172*	.262***	.225**	.260***	.286***

*p<0.1, **p<0.05, ***p<0.01

다음으로,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와 농촌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위 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1단계 모형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농촌생활 만족도에 대해 17.6%의 설명변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인만을 모형에 투입했을 때 농촌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 가구소득, 귀농준비기간, 정부사업수혜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귀농준비기간이 길수록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젊을수록, 귀농준비기간이 충분할수록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이상호(200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귀농준비기간이 길다는 것은 농촌 생활에 대해 그만큼 많은 지식과 정보, 기술을 습득했음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귀농·귀촌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적성 등을 검증하고 견고히 하는 기간을 오랫동안 가져왔음을 의미한다고 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사업수혜여부가 농촌생활 만족도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관계는 정부 사업 자체가 직접적으로 만족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가보다는, 간접적으로 자조, 자립에의 의지 등을 대리하는 변인으로서의 효과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정확한 구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농촌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동반 귀농·귀촌자'는 박공주 등(2006)의 결과와 다르게 유의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했다.

2단계에서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의 하위 요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1단계 모형에 비해 설명변량이 30.6% 증가하여, 농촌생활 만족도를 48.1%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운데에서는 성별의 영향력이 추가로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사라졌다. 귀농준비기간과 정부사업수혜여부의 영향력은 지속되었다. 다시 말해서, 남성보다 여성일 때, 연령이 적을수록, 귀농준비기간 길수록, 정부사업의 수혜를 받지 않았을 때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의 하위 요인 가운데에서는 임금(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해석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과 임금(소득)에 대한 만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pearman's $\rho = -.003$).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의 관계를 분석한 박세영(2011), 방하남(2000) 등은 '직무에 대한 보상 수준'이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짐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에서 나타나는 임금(소득)에 대한 만족도와 농촌생활 만족도의 관계는 이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임금(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¹²⁾ 이는 임금(소득)의 양에 관

12) 가구의 총소득과 지역사회 참여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Spearman's $\rho = .068$).

계없이 만족할 수 있는 태도, 마음가짐, 가치관 등이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은 앞에서 제시된 '다른 활동과의 병행 형태'나 '근무(활동) 형태'와 관련이 높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 8>에서 이러한 두 변인과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 및 농촌생활 만족도의 관계가 상충되는 결과를 보여 귀농·귀촌인이 선호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규정을 짓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귀농·귀촌인이 농업 또는 농업 외 활동과 병행하거나, 또는 전업으로 종사할 수 있는 시간제 또는 상근 일자리 등을 다양한 형태로 마련하는 것이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0> 농촌생활 만족도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모형		I		II	
		B	β	B	β
인구 사회 학적 변인	성별 ¹⁾	-.180	-.129	-.370	-.264***
	연령	-.022	-.275**	-.017	-.209**
	가구소득	.076	.185*	.049	.118
	귀농준비기간	.031	.255**	.021	.168*
	동반자 ²⁾	.207	.140	.167	.113
	정부사업수혜 ³⁾	-.336	-.258**	-.305	-.234**
지역 사회 참여 활동 만족도	임금/소득 만족도			.110	.190*
	안정성 만족도			.076	.110
	업무내용 만족도			.120	.175
	근로환경 만족도			-.064	-.101
	근로시간 만족도			.153	.225*
	개인발전 만족도			.042	.060
	인간관계 만족도			.111	.153

상수항	4.511	2.566
F값	2.734**	4.998***
R ²	.176	.481
R ² 증가량	-	.306

*p<0.1, **p<0.05, ***p<0.01

1) 성별 : 1=남성, 0=여성

2) 동반자 : 1=동반가족 있음, 0=동반가족 없음

3) 정부사업 수혜 : 1=받은 적 있음, 0=받은 적 없음

5. 결론

본고는 귀농·귀촌인들이 농촌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농촌 사회에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다각적,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구체적 실태, 농촌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 지역에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귀농·귀촌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활동을 지역경제, 지역사회, 지역자원 및 환경보전에 각각 기여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참여 비율을 나타낸 유형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형'이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형 활동 가운데에서는 마을단위사업 실무나 도농교류 활동, 농산물(가공품)생산자 조직 활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형 가운데에서는 귀농·귀촌인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및 복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았다. 또한 지역자원 및 환경보전 기여형 활동에서는 농촌 지역의 취약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취미동아리 등에서 활동하고 있

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둘째, 귀농·귀촌인들의 지역사회 활동은 다양한 참여 경로, 형태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주 전에 농업을 계획했다라도(38.8%) 마을개발사업 실무자, 여성복지센터 실무자 등으로 활동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으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농업을 병행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47.5%).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 동기로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된 비율이 높았으나(52.5%), 지역사회 적응(11.7%)이나 경제적 이유(11.7%)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근무(활동) 형태로는 상근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39.8%), 시간제, 필요시 근무 등 유연하게 근무(활동)하고 있는 비율도 높았다(47.5%).

셋째,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이점에 대해 응답자들은 보람을 제공(50.4%)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정착, 소득원 확보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인터뷰 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농업 종사자가 영농기술을 익히고 지역사회에 적응하기까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기능함으로써, 농업 이외 종사자뿐만 아니라 농업 종사자의 농촌 정착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 참여활동은 도시와 다른 낯선 농촌 환경에서 심리적 적응력을 제고시키고, 일정 소득 창출, 지역문화 학습, 관계망 형성 등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하도록 하는 데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귀농·귀촌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형태에 따른 만족도 분석 결과, 귀농·귀촌 준비 기간, 지역사회 활동 참여 동기, 다른 활동과의 병행 형태, 활동 계속 의향이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나 농촌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회 참여활동 동기가 '의미 추구'인 경우 활동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우에 농촌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경제적 이유'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활동 및 농촌생활 만족도가 모

두 낮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참여활동이나 농촌생활이 이주민의 경제적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 위주로 참여하기보다는 농업이나 농업 외 활동과 병행할 경우에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활동에 100만원 이하의 임금(소득)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74.6%, 무급 34.7%),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참여활동만으로 가계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다섯째,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가 농촌생활 만족도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설명변량을 제외하였을 때, 농촌생활 만족도를 30.6%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모형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만을 모형에 투입했을 때 농촌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연령, 가구소득, 귀농준비기간, 정부사업수혜여부인 반면, 2단계에서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의 하위 요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성별, 연령, 귀농준비기간, 정부사업수혜여부, 임금(소득)에 대한 만족도,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한 설명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남성보다 여성일 때, 연령이 적을수록, 귀농준비기간 길수록, 정부사업의 수혜를 받지 않았을 때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의 하위 요인 가운데 임금(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금(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반드시 임금이 높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구명되었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로는 귀농·귀촌인이 선호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규정을 짓기는 쉽지 않았으나, 귀농·귀촌인이 농업 또는 농업 외 활동과 병행하거나, 또는 전업으로 종사할 수 있는 시간제 또는 상근

일자리 등을 다양한 형태로 마련하는 것이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판단된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대해 현재 프로젝트 공모 형식(전북, 진안, 완주 등), 급여나 활동비 지원 형식(전북, 진안, 장수 등) 등으로 주로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량적으로 드러나는 효과가 미미하고, 사업의 효과가 창업이나 자립 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의 확대나 타 지역으로의 확산이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의 분석 결과는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귀농·귀촌인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착과 농촌생활에의 만족도 제고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고용을 창출하고, 유무형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에 발전적 동력이 되고 있는 사례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이주 초기의 생활 지원책으로서, 지역사회의 생활 문화를 학습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하는 융합 촉진책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적 활력 제고를 위해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대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귀농·귀촌인들이 어떤 형태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주는지, 그들이 농촌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농촌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한 구명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생활 만족도와 임금(소득)에 대한 만족도, 정부사업수혜여부 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도 귀농·귀촌인과 정착 과정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보다 심층적인 조명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적은 수의 표본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한계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 공경호. (2002). 성인의 스포츠 참가 장애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7, 709-721.
- 구자인. (2006). 농촌 살리기의 대안, ‘마을 간사’ 제도. *환경과 생명*, 47.
- 금창영. (2011). 귀농·귀촌 과정에서 갈등요인과 해결방법. 귀농·귀촌 활성화 전문가 토론회(2011.11.5.) 자료집.
- 김정섭. (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6(3), 533-556.
- 박공주, 윤순덕, & 강경하. (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12(4), 63-76.
- 박문호, 김정섭, & 허주녕. (2008). 농어촌 뉴타운 공동체 조성·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농촌경제연구원.
- 박세영. (2011). 생활만족에 대한 직무만족과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2), 331-353.
- 박시현, 성주인, & 윤병석. (2011).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귀농·귀촌 활성화 전문가 토론회(2011.11.5.) 자료집.
- 박정은. (1994). 초기노인여성의 사회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방하남. (2000).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과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3, 113-154.
- 백승규, & 이영면. (2010).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생활만족이 미치는 조절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17(4), 349-371.
- 안병욱, 김창수, & 임영삼. (2010). 태권도 지도자의 여가활동 유형과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2), 183-194.
- 양순미, 최규홍, & 강경하. (2009).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사회참여활동 실태 및 이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화. *농촌지도와 개발*, 16(4), 713-742.
- 양순미. (2010).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참여활동 태도가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20(1), 233-263.
- 유정규. (2009).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발전 전망과 과제, (재)지역재단 창립6주년 기념 심포지엄(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

- 업의 전망과 과제) 자료집, 서울: 지역재단.
- 윤순덕, 강경하, 박공주, & 이정화. (2005). 도시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5(3), 139-153.
- 이민수. (2010).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전북발전연구원.
- 이민수, & 박덕병. (2011). 도시민 농촌이주에 대한 주요 쟁점과 시사점. *농촌지도와 개발*, 18(1), 1-34.
- 이상호. (2008). 경북지역 귀농인의 지역 및 지역주민과의 만족도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5(3), 551-565.
- 이지원. (2009). *농촌 마을문화공간 운영사례.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방안 및 사례*. 수원: 농촌진흥청.
- 이환의. (2010). *귀농, 10년간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꾸어 왔다*. 국립농업과학원 전문가 초청세미나(2010.4.1.) 자료.
- 제갈돈, & 김태형. (2007). 지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3), 7-34.
- Bosworth, G. (2006). *Counterurbanisation and Job Creation: Entrepreneurial In-Migration and Rural Economic Development*. Newcastle: Centre for Rural Economy.
- Brown, D. L., & Glasgow, N. (2008). Communit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ssociated with Retirement In-Migration. In D. L. Brown, & N. Glasgow (Eds.) *Rural Retirement Migration* (pp.141-178). Springer.
- Glasgow, N., & Arguillas M. (2008). Social Integration and Health of Older In-migrants to Rural Retirement Destinations. In D. L. Brown, & N. Glasgow (Eds.) *Rural Retirement Migration* (pp.141-178). Springer.
- Reichert, C., Cromartie, J. & Arthun, R. (2011). *Return Migrant and Their Impact on Rural Communities*. 2011 Rural Sociological Society-Community Development Society Meeting.